

설 가정 예배 순서지



목상기도	인도자
찬 송 38장(예수 우리 왕이여)	다같이
	1.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	
	2. 예수 우리 주시여 이 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	
대표기도	말은이
성경봉독/말씀 에베소서 5:15~21	말은이
찬 송 620장(여기에 모인 우리)	다같이
	1.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	
	2.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	
	3.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 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[후렴]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하여 주신다	
축복의말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나누세요	다같이
가족기도 서로의 기도제목으로 중보합니다	다같이
주기도문	다같이

*인도는 가족 중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이 인도합니다.

*축복의 시간에는 먼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세요.
부모님께서 자녀들을 축복해주시고, 형제간에 포옹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.

<설교문>

설이란 본래 ‘싫다’라는 뜻에서 온 말로, 한 해가 바뀌어 새해 첫 날에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이 날은 특히 근신한다는 의미가 담긴 날입니다. 오늘 말씀은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.

첫 번째로, ‘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삶’입니다.

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은 유한한 시간입니다. 지나간 작년은 다시 오지 못하며 언젠가 우리 모두는 시간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종착역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.

두 번째로, ‘주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삶’입니다.

우리가 이 한 해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.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.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그 뜻을 이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.

세 번째로, ‘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’입니다.

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는 삶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.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,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.

우리 가족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.